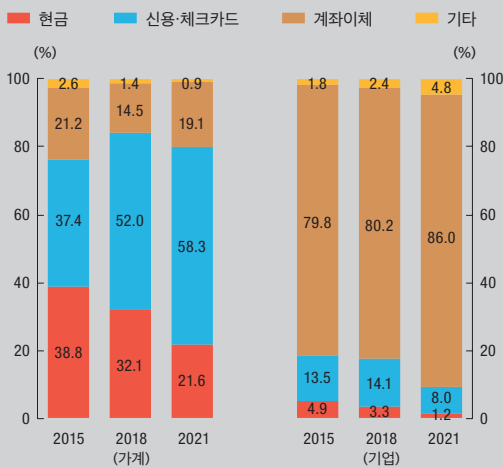


참고 II-1.

2021년 경제주체별 현금사용행태 결과

한국은행은 국민의 현금사용에 관한 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가계와 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현금사용행태 조사⁸³⁾를 실시하였다. 우선 현금사용을 보면 가계와 기업 모두 비현금지급수단 이용 확대 등으로 2018년에 비해 현금지출규모⁸⁴⁾가 줄어들면서 총 지출액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다. 특히 가계의 경우 현금지출 비중이 21.6%로 신용·체크카드(58.3%)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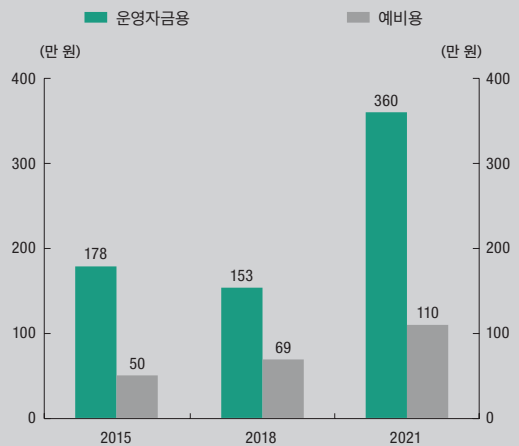
그림 II - 16. 지급수단별 지출액 비중¹⁾



주: 1) 월평균 총지출액에서 각 지급수단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은행

현금보유는 예비용 현금 수요⁸⁵⁾ 확대 등으로 증가하였다. 비상시에 대비하여 예비용 현금을 보유한 가구의 비중이 큰 폭 상승(2018년 23.3% → 2021년 31.4%)하였으며, 기업의 경우 일상 운영자금과 함께 예비용 현금보유가 모두 늘어나면서 평균 현금보유액이 2018년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심화, 낮은 금리 수준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 - 17. 기업의 용도별 현금보유액¹⁾



주: 1) 월평균 보유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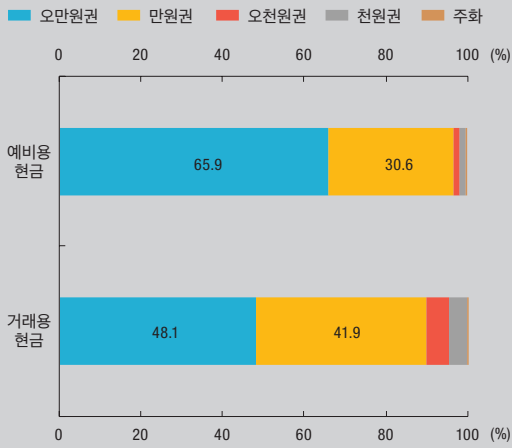
한편 화폐 종류별로는 5만원권과 만원권 위주로 보유 및 사용되고 있으며 주화는 상당부분 퇴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가 보유한 현금의 권종별 비중을 보면 거래용의 경우 5만원권과 만원권이 각각 48.1% 41.9%를 차지하였으며 예비용은 5만원권이 65.9%를 차지하였다. 주화의 경우에는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주화중 일상거래에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주화의 비중이 76.9%(금액기준)에 달하였다.

83) 3년 단위의 정례 조사로 2015년, 2018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하였다.

84) 가계 및 기업의 월평균 현금지출액은 2018년 각각 64만 원, 2,906만 원에서 2021년 51만 원, 912만 원으로 감소하였다.

85) 거래용 현금이란 일상적인 거래를 위해 현재 소지하고 있는 현금을, 예비용 현금이란 현재 소지하고 있는 돈 이외에 비상시에 대비하여 집, 사무실 등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을 의미한다.

그림 II - 18. 가계의 화폐 종류별 현금 보유비중 (금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QR BOX



QR 1

위조지폐 유통방지 동영상
- 제1편 위조지폐 식별요령



QR 2

위조지폐 유통방지 동영상
- 제2편 위조지폐 발견시
행동요령



QR 3

위조지폐 유통방지 동영상
- 제3편 화폐도안 이용기준



QR 4

알기쉬운 위조지폐 확인법
앱 소개



QR 5

화폐사랑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참고 II - 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재구축

한국은행은 지난 2004년 만들어져 그간 국민들
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온 경제통계시스템(ECOS)
을 전면 재구축하였다.(2022년 5월 30일 정식 가
동) 경제통계시스템 전면 재구축은 통계작성 업무
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통계조회환경을 제공하고 데이터 관리체계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우선 외부 이용자들이 통계를 더 효과적으로 검
색할 수 있도록 통계분류체계를 재분류하고 화면구
성과 검색기능도 개선하였다. 기존 18개이던 통계
의 대분류 체계를 9개로 단순화하고 분류 및 하위
계층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원하는 통계까지의
탐색 과정을 줄였다. 또한 통계 검색의 효율성을 높
이고, 사용자가 과거에 조회한 목록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반복 사용되는 통계의 재조회과정을
편리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데이터 분석 툴을 이
용해 통계자료를 시각화하고 통계표, 보고서 등의
작성이 용이하도록 편의 기능도 향상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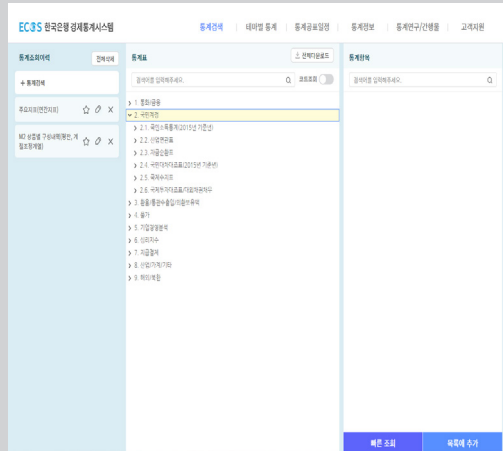
시스템 측면에서는 한국은행의 통계기초자료 수
집부터 편제, 공표에 이르기까지 모든 통계작성과
정의 효율성을 높였다.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통계
작성업무 전산화 효과를 높이고 기초자료의 처리,
오류검증 체계를 강화했다. 기존 통화금융통계, 생
산자물가 등을 재개발하고 국제수지, 자금순환, 금
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 등의 편제기능을 추가하
여 통계작성의 효율성을 높였다.

앞으로 한국은행은 새롭게 구축된 경제통계시스
템을 기반으로 경제 및 IT 환경 변화와 다양한 통계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 II - 25. 이용자 포털 메인 및 통계 검색 화면



통계 검색



자료: 한국은행

참고 II-3.

한국은행 블로그¹⁹⁹⁾ 개설·운영

한국은행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계기로 빠르게 늘어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수요에 대응하여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채널을 활성화하는 등 대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22년 5월말부터 대외 소통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한국은행 홈페이지 내 ‘블로그’를 신설하였다. 한국은행 블로그는 통화정책, 경제상황 분석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한국은행 임직원의 의견을 일반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공간이다. 참고로 블로그와 함께 업무정보, 시장동향 자료 등 한국은행이 생산하는 자료의 대외공개를 확대하기 위해 2022년 6월 홈페이지 내 「정보·동향자료」 메뉴도 새로 개설하였다.

2022년 5월~12월 중 총 34개의 블로그를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통화정책 결정 배경, 국내외 다양한 경제현안과 주요 리스크 요인들을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풀어서 설명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연말 신용채권시장 등 금융불안 우려가 확산된 상황에서 「금융안정 상황을 균형있게 바라보기」, 「최근 단기금융 및 채권 시장 불안과 한국은행의 시장안정화 조치」 등 블로그를 게시하여 금융안정 현황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블로그 게시물 중 일부를 국민들의 영상 콘텐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5분 내외 길이의 영상(「BOK코멘터리」)으로도 제작해 한국은행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²⁰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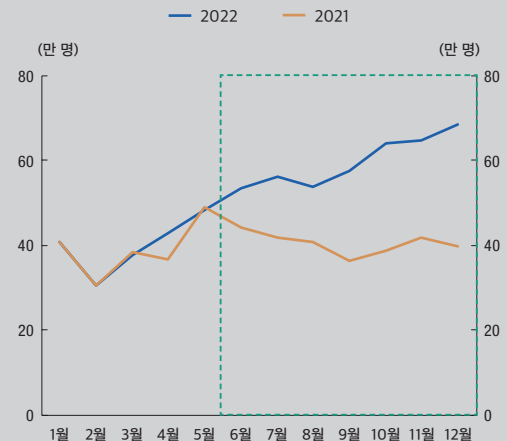
그림 II - 34. 유튜브 「BOK코멘터리」



자료: 한국은행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중 647.4만 명이 방문했던 한국은행 홈페이지는 2022년에는 835.8만 명이 방문하면서 전년에 비해 방문자 수가 크게 늘어났다. 특히 블로그를 개설한 2022년 5월 이후 방문자 수는 2021년의 같은 기간 중 방문자 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II - 35. 2021년 및 2022년 월별 홈페이지 방문자 수



자료: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경제현안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199) 한국은행 블로그.

200) 한국은행 유튜브 「BOK코멘터리」.

참고 Ⅲ-1.

한국은행 경영인사 혁신방안²¹⁰⁾

한국은행은 ‘내부 중심의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수요자 중심의 수평적인 조직문화’로 전환하기 위해 임직원, 글로벌 HR 전문 컨설팅업체 등과 함께 「한국은행 경영인사 혁신방안」을 마련(2022년 6월)하였다. 동 방안은 조직·인사 제도 등 하드웨어 뿐 아니라 업무수행 절차, 인사운영 등 소프트웨어 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첫째, 총재의 권한을 대폭 하부위임하고 이에 맞춰 직책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재조정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직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부(部)” 조직 설치를 통해 부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TF”와 같은 애자일 조직을 활성화함으로써 조직의 역동성과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모색하였다.

둘째, 모든 업무수행과정에서 상호 리뷰와 진행

적 정보공유를 활성화함으로써 협력과 소통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집단지성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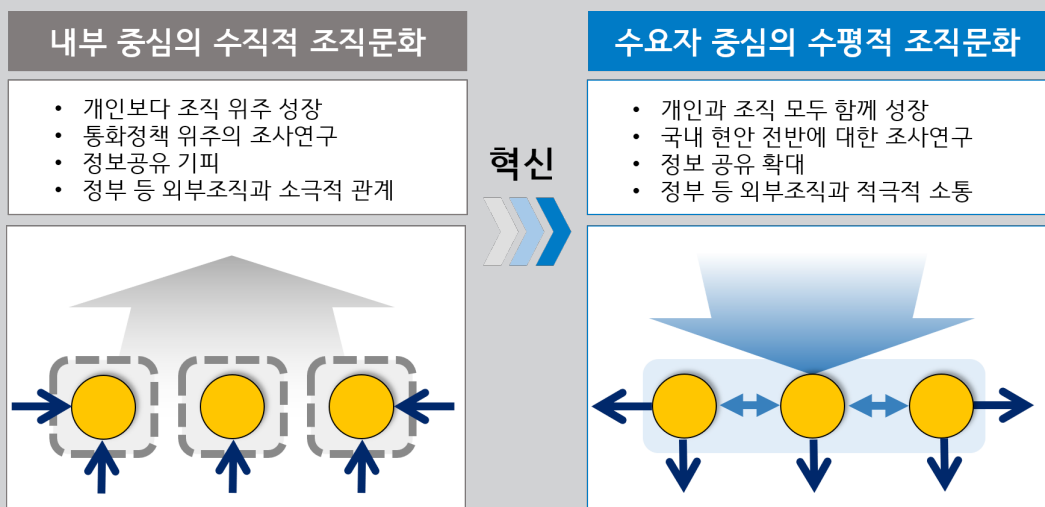
셋째, 직원들이 특정 분야에서 장기근무하며 최고의 전문성을 축적하여 조직과 개인의 전문역량이 함께 강화될 수 있도록 경제모형, 통계 등의 분야에 대해 전문가 경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넷째, 조직의 핵심역량을 지원하는 실무직원들의 직무·직제 개편 등을 통해 소속감을 고취하는 한편, 새로운 조직운영 방식에 부합하면서도 직원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제도를 개편함으로써 업무성과에 대한 인정과 직원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지역사회의 싱크탱크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역조사연구 업무를 대외지향적으로 확장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위의 혁신방안은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동 방안이 조직 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그림 Ⅲ- 5. 경영인사 혁신의 목표



210)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보도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참고 III-2.

한국은행 재무제표의 특징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및 외환 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은행의 특수성으로 인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및 금융기관 등과 재무제표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①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2조에 따른 무자본 특수법인으로서 대차대조표상 자본 항목 중 자본금이 없다. 다만, 손실보전에 대비하여 순이익금의 일부를 내부 적립함에 따라 이익잉여금만으로 자본을 구성하고 있다.

② 한국은행은 대차대조표상 부채 항목 중 화폐 발행이라는 계정과목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법 제47조에 따라 발행된 화폐 총액을 표시하며, 한국은행은 한국은행권의 소지자에게 액면가만큼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③ 한국은행의 대차대조표상 자산 항목 중 현금 계정에는 잔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한국은행법 제50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행권은 미발행 부채로서 한국은행의 자산 또는 부채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행권은 출납창구를 통해 외부로 지급된 이후에야 부채 항목 중 화폐발행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처리된다.

④ 한국은행은 대차대조표상 자산 항목인 정부대출금과 부채 항목인 정부예금이라는 계정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이 정부의 은행 기능을 수행함

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대출하고 국고금을 예수하기 때문이다.

⑤ 한국은행은 대차대조표상 자산 항목 중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과 출자증권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이 대한민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통화기구 또는 금융기구에 정부를 대표하여 출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⑥ 한국은행은 대차대조표상 자산 항목 중 특별인출권보유와 부채 항목 중 특별인출권배분이라는 계정과목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회원국 앞으로 창출·배분하는 국제결제수단인 특별인출권(SDR)은 IMF에 대한 채권임과 동시에 특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IMF가 회원국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부채이기 때문이다.

⑦ 한국은행은 대차대조표상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외환평가로 발생하는 환산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이연계정인 외환평가조정금 계정에 계상하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 등으로 거래의 외화자산을 보유한 가운데, 원화환율 변동에 따른 동 자산의 평가손익을 기간 손익에 반영할 경우 재무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기 때문이다.

⑧ 한국은행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있어서 일반기업 및 금융기관 등과 달리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 이는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의 특성상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이 없기 때문이다.